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 타투, 해 말어? 문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은

미주기독일보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고충들에 대한 미주 목회자들의 신앙적 조언들을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타투문화에 대해서도 최근 영상에서 다뤄 주목된다.

'신앙난제1: 크리스천은 타투 하면 안되나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차에서는 치노힐스 섬김의교회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상훈 목사가 멘토를 맡았다. 임목사는 PCA(미국장로교) 소속으로 한국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임목사는 문신에 대해 "레위기에서는 분명 문신에 대해 금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최근 문신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자기 우상화'와 외모지상주의라는 시대적 정신과 연관돼 있기에 기독교인이라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내면



미주기독일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장주리 전도사와 임상훈 목사와 문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기독일보

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임목사는 성경에서 문신에 대한 구절인 레위기 19장 28절을 소개하면서 "문신에 대한 성경 구절은 성경을 통틀어 이 한 부분이 나오는데 당시 가나안 사회는 문신이 우상숭배나 주술적 목적이었다"면서 "주변의 이 집트나, 후대의 중세 유럽, 근세

일본까지도 문신은 악귀를 쫓기 위한 종교적 의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임목사는 예수님 이후 구약의 특정구절을 적용하는데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문신의 의미도 많이 달라졌고,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로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기에 문신을 하면 안 된다고 단

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목사는 곧바로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17)는 구절을 들었다. 임목사는 율법의 문자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신앙적 정신은 현대

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임목사는 문신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문신에 사용되는 잉크는 안정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데다 시술의 고통 또한 상당하고 제거술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면서 "또 하나,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문신이 교회에 많은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대에 와서 문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자기 몸을 우상화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나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신경쓰는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한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들이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자들로, '예수님짜리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 영 성공회 수장, '팬데믹 기간 교회 폐쇄' 후회 뜻 내비쳐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신 못해... 다시 시간 주어진다면 보다 신중할 것"

영국성공회 캔터베리대주교가 팬데믹 기간 교회 폐쇄 정책에 대해 "너무 위험을 회피했다"고 인정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대주교는 최근 라디오 타임스(Radio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회를 폐쇄하기로 했던 결정

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러나 "폐쇄 결정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내린 것이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난 교황이 아니다. 그렇지만 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교회 폐쇄는 영국성공회 일부 지역에서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혔고, 많은 성직자들이 교회 문을 열어두는 캠페인을 지지하기도 했다.

당시 영국 전역에서 모인 수십 명의 성직자들은 영국 총리와 의원들에게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규제를 자제해 달라"며 "엄격한 개인 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 공적 예배가 술집, 식당,

체육관, 사무실, 학교보다 훨씬 위험이 적으며, 예배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교회 폐쇄에 대해 보다 신중할 것"이라며 "당시 우리는 바이러스가 표면에 오래 머물 수 있고, 감염된 사람의 30%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쁜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법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 해결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럽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한국 헤민병원 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마감일 3월 30일**  
**검진내용**  
 ♣ CT 촬영(뇌, 폐 선택) ♣ 수면 대장내시경  
 ♣ 종양표지자 암검사 ♣ 수면 위내시경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특수 초음파 검사 ♣ 골밀도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100 쿠폰구입 \$280 검사당일 납부  
 (환율변동)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종합검진센터 **이성수** 소장  
 자세한 내용은 **213.668.4781** 로 문의해 주세요.

# 효사랑 선교회 시니어대학, 대면 수업으로 봄학기 개강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되면서 시니어 들도 기지개를 펴고 배움의 준비가 한창이다.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오는 3월 1일(화) 개강하는 봄학기 수업으로 캘리 그라프, 하모니카,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훈련, 스마트 폰, 건강체조, 힐링 댄스, 음악교실, 성경을 쉽게 배우는 성경과노라마, 클레이 아트 등 다양한 과목을 마련하고 시니어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날 말 맞추기 퍼즐을 제공하며, 특강으로는 섹스폰과 기타 클래스가 운영된다.

김영찬 목사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시니어들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제 펜데믹도 약해지면서 대면으로 시니어 대학을 개강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봄학기 등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양질의 과목을 개설해 시니어들의 배움의 갈증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효사랑 시니어대학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 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라는 학훈으로 운영되며, 성경적 효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유익하다.

봄학기 등록비는 매월 50달러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며 수업 중에는 방역 수칙이 준수된다.

문의 : 562-833-5520

김동욱 기자

“성경적 효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

효사랑 시니어 대학

대면수업 개강일 : 2022년 3월 1일  
등록비: 월 \$50.00

“성경적 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는 것입니다.” (잠언 5:4)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노인으로 살 것인가?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 것인가?를 시니어 대학에서 배우고 훈련하여 커뮤니티에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지고, 값지고, 보람있게 사시도록 돕겠습니다.

## 힘찬 호랑이 기운 받아 “대륙횡단 떠나봅시다!”



US아주투어(대표 박평식)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희망하는 평생의 꿈 미 대륙횡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US아주투어가 기획한 미국 대륙횡단 여행은 오는 6월 1일(수)부터 16일간 미 대륙을 횡단한다.

박평식 대표는 “미국에 살면서 대륙횡단의 꿈을 꾀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평생의 꿈이자 버킷리스트다. 이에 US아주투어는 최고급 리무진버스와 비즈니스 항공, 특급 호텔로 품격을 높인 대륙횡단 코스를 선보인다”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대륙횡단을 위해서는 총 384시간가량을 차량에서 보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이동 수단이 대륙횡단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대륙횡단을 위해 새해에 출고된 56인승 대형버스를 32인승 FIRST CLASS VVIP 리무진으로 개조했고, 한인 체형에 맞춰 의자 높이를 10cm 줄였다. 발 받침대에 발이 닿아 침대처럼 편안한 좌석에서 대륙을 달릴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새로운 리무진버스는 넉넉한 좌석 간격은 물론, 와이파이를 즐기고 다양한 디바이스도 충전할 수 있다.

US아주투어의 대륙횡단은 사막, 들판, 도심의 숲속으로 향한다. 그랜드캐니언 노스립, 호스슈밴드, 모뉴먼트밸리, 앤텔롭캐니언, 아치스, 자이언캐니언, 솔트레이크 시티투어, 라바 노천온천, 그랜드티톤, 옐로스톤, 크레이지 호스, 마운트 러쉬모어, 배드랜드, 시카고 시티

투어, 미시건 호수, 나이아가라 폭포, 천성, 워싱턴 D.C, 뉴욕 시티 투어 등으로 알찬 코스를 준비했다. 아울러 옵션과 가이드 피, 기사 서비스피를 포함한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또한 아주의 대륙횡단은 뉴욕/LAX 구간 비즈니스 CLS 항공을 이용하고 각 지역 특급호텔에 숙박한다. 비즈니스 좌석 확보를 위해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박 대표는 “임인년 용맹한 호랑이 기운을 받아 대륙횡단에 도전해 본다면 2022년이 평생 기억되고 보람찬 한 해가 될 것이다. US아주투어가 제일 럭셔리하고 품격 있는 여행길을 책임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예약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213)388-4000

## 치매 초기 환자 위한 LA 소망 케어 교실 오픈



LA에서도 치매환자와 가족, 및 간병인들을 위한 모임이 열린다.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오는 3월부터 남가주 새누리교회(975 S. Berendo St., L.A., CA 90006)에서 'LA 소망케어교실'을 오픈한다.

대상은 치매 초기 증상의 환자들이다. 이들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망케어교실의 취지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7년 전부터 한인사회에선 처음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소망케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한인사회의 거듭된 요청으로 LA에까지 서비스를 확대

한 것이다. 소망케어교실은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지원모임도 개설한다. 환자가족들이 함께 모여 치매와 관련된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한편 서로 용기를 북돋아줘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가족들은 1주일 중 하루라도 환자케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LA소망케어교실은 3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같은 날 오픈하는 치매가족지원모임은 매달 첫번째 목요일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다. 문의: (562) 977-4580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책임**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 신뢰**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뺄 수 없는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공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외법률의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 “가정폭력 예방, 한인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매우 중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을 종교지도자 18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캐서린 염)가 지난 1월31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인종교지도자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한 화상수업을 통해 진행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인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가정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전문가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

뤼졌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종교기관이다”라며 “그만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 수료생인 김윤성 사모는 “이번 교육을 받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배움을 얻었다”며 “앞

으로도 주위를 좀 더 돌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용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수료생인 크리스틴 리 수감자는 “내가 직접 실행

할 수 있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가정폭력 피해자 돕기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식 인증 기관이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가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2일 목회자 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종교지도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 비전케어 웨스트, 히스패닉 주민 무료 시각검사 진행



비전케어 웨스트, 히스패닉 주민 대상 무료 안검사 진행

비전케어서비스 웨스트(VCS West·이사장 고정원)가 오픈뱅크와 강드림재단, 패밀리리오피스재단, 해피빌리지의 후원으로 LA 지역 저소득층 히스패닉을 위한 무료 아이캠프를 진행했다.

비전케어 웨스트는 지난 5일 몬터레이파크 소재, 히스패닉 교회인 ‘이글레시아 미시오네라 레나세르(Iglesia Misionera Renacer)’에서 무료 시력검사와 안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눈 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들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체류신분 문제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히스패닉 주민 120여명이 방문해 검진을 받았다.

비전케어 웨스트는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히스패닉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비전케어 이사

이자 안과전문의인 조성진 의사, 리사 황 의사, 켈빈 임 의사, 앨리스 김 의사가 자원봉사를 했으며, 또감사교회 교인 20여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히스패닉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점심을 제공했다.

한편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인 커뮤니티내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면 봉사를 다시 재개해 80여명의 한인들에게 무료 안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8명의 한인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으며, 2명의 한인에게 녹내장 치료를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한인 커뮤니티 외에 타인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신임 회장에 김현석 박사 추대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회장 이.취임식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신임 회장으로 육사 45기, 예비령 소령 김현석 박사가 취임했다.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는 지난 12일 LA 코리아타운 내 소재한 말씀새로움교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김현석 박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동안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회장으로 수고한 김희

창 박사는 해군과 해병대 군복 출신으로 고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모임을 매월 진행해 왔다.

이날 김현석 신임회장은 김희창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고, 김희창 회장은 부회장인 최정학 장로와 차기학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는 앞으로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휘장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선교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www.itsla.edu



##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헌장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2022년 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라이도요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티몬화사역



데이빗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판호 교수, Dr. Theol. (독일 본대학)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유학생 1-20 발급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2년 2월 14일 (월) - 2월 25일 (금)
합격자 발표	2022년 3월 7일 (월)

#### 봄 학기 일정(10주)

2022년 3월 28일 (월) - 6월 3일 (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43

### “2022 사역자 컨퍼런스가 휴스턴에서 열린다(1)”

지난 주말 2월 18일부터 4일간 InterCP International(인터콥) 선교단체에서 주관한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 선교 대회에 다녀왔다.

북미주 50여 개 지부에서 사역하는 간사 스태프들이 모이는 대회이기에 첫날 첫 예배 찬양부터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였다. 강단이 좁은 관계로 예배팀 8명의 다민족 보컬들이 강단에 서고 나머지 10여 명의 예배팀들은 강단 아래에서 예배를 인도하였다. 1천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이번 찬양의 특징은 대부분 곡을 이스라엘 찬양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이스라엘 현지 메시아니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찬송을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4개의 대형 화면에 띄웠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언어로 함께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찬양을 동시에 다국어로 마음 맞추어 부를 수 있는 집회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지고 은혜롭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계시록에서 예언한 천상의 예배에서 셀 수 없는 온 열방의 성도들이 모여 부를 찬양의 찬양을 미리 체험하는 듯하다. 함께 기도 제목에 의해 통성으로 합심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1시간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린다. 그리고 현장 체험 간증과 각 지역 선교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들의 특강, 주제강의가 4일간 진행된다. 필자는 매년,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부흥을 위해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를 보아왔다. 구약에서 절망에 빠져 오열하며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부르짖는 엘리야를 향해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기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글로써 팬데믹 가운데서도 남기셨음을 나는 이들을 통해 확신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날아가는 미사일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 모두는 예배의 자리로 향했다. 예배를 드리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란 난민들과 이란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래전부터 파송 받아 사역하던 필리핀 선교부 선교사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을 만나서 교제했다. 선교사역이 정제되어 있던 그들이 비전 스쿨을 알게 되었다. 6년이 지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선교의 황금기를 맞았다. 필리핀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현지인 비전 스쿨을 통해 수백 명의 수료자가 나오고 수십 명의 현지 단기선교팀이 다녀왔다. 요르단에서도, 레바논은 물론, 이집트에서도 인도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조지아에서도, 튀니지와 모리타니에서도 북방의 카스피의 소수 민족에게까지 지난 2021년 한 해도 쉽 없이 하나님의 군대는 열방을 밟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만나는 기쁨을 지상에서 어떤 것으로 빼앗을 수 있을까?

선교를 말하는 이들이 “Break through”를 쉽 없이 말하면서도 한 발짝 나가지 못할 때 이들은 말 없이 쉽 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실행하였다. 어느 교회들은 우리 교인들을 빼간다고 불평한다. 교인들을 전방 선교지에 안내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게 하는 선교단체의 일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일까? 진정 선교적 교회라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계속)

2019년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발사된 수백 개의 미사일이 예루살렘을 강타할 때, 그 시간이 예루살렘 월드미션 예배의 날이었다. 하늘 위로 높이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경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② “예수님 고향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주의 사자가 이르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 되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나사렛을 떠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나사렛이라는 말이 붙어 다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마2:22~23, 요 19:19) 혹은 나사렛 예수(행 26:9)로 불리고 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나사렛의 동서,북세 방향은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있고 남쪽면은 열린 절벽입니다. 나사렛은 분지의 언덕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미미한 도시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특별할 것이 없는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이렇게 초라한 것은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이전에는 완전한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구약에는 단 한군데에도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이하 16절 까지는 스킵론(Zebulon)지파 사람들이 이 지방에 정착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있고, 이 기록에 12개의 읍촌(邑村)들과 6개의 마을 이름들이 나오지만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느 랍비들의 문헌에도 나사렛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수님 생애와 관련된 도시들을 언급하지만 나사렛이란 지명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울조차도 나사렛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은 철저히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시절 나사렛은 갈릴리

는 천주교 성당입니다. 세워진 첫 교회는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되었고, 십자군이 다시 대 규모의 교회를 지었지만 이슬람들에 의해 또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17세기에 3번째 교회가 건축되었고 현재는 이태리의 유명한 건축가 지오바니 무지오(Giovanni Muzio)의 설계로 지어 1969년에 봉헌된 5번째 교회입니다.

또 같은 울타리 안에 수태고지를 받은 요셉을 기념하는 성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 수태고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성요셉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소속 교회입니다. 성요셉 교회는 요셉이 목수 일을 했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알려집니다. 이 근처에 마리아의 우물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중요한 성지순례 장소입니다.

지금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는 나사렛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현재는 나사렛은 아랍계 그리스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아랍계(系) 기독교(천주교, 기독교, 정교회)인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수도원이나 성당 건물이 눈에 띄고, 길거리에는 허잡을 쓴 무슬림보다 자유복장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아랍 사람이 많습니다.

나사렛은 공생애 이전 예수님이 살았던 고향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모들이 정혼했고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 받았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수태고지 교회’안에 예수님 집안이 거주했던 동굴식 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은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소설, 시 그리고 뮤지컬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역사와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들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리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부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6)

## 최초의 해외 선교사이며 박해자였던 이기풍을 세운 마펏선교사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폭정을 일삼는 관가의 핍박과 개인의 집요한 방해와 괴롭힘이 뒤따랐다. 음란한 도성이며 폭력배가 많았던 평양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과정에 이를 방해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괴롭힌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었다. 관리로는 그 당시 평양 감사인 민병석으로 그의 횡포가 매우 극심하였다. 그는 민비 일가로서 그의 영향력을 대단하였기에 자신의 관리 역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선교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선교사들의 사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그는 장로교의 마펏 선교사와 감리교의 흘 선교사와 그의 조수인 한석진과 김창식을 관가에 잡아다가 매를 치고 옥에 가두며 처형하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에게 집을 판 사람도 잡아다가 가두었고 예수를 믿는 소수의 기독교인까지도 옥에 넣고 매를 치며 목에 칼을 채웠다. 그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면 석방해 준다는 겁박과 회유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직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마펏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방해한 사람은 이기풍이었습니다. 그는 평양 성내의 장날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마펏 선교사가 찬양과 전도를 할 때에 그에게 돌을 던져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만든 난폭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기풍은 평양의 유명한 강패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에 그가 거듭나 한국 최초의 7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변화였다.

그는 1868년 평양 출신으로 양반 가문이었으나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어서 여섯 살 때에 사서삼경을 외우고 12살 때에는 백일장 장원에 뽑힐 정도로 신동



평양 장대현교회 앞의 사무엘 마펏 선교사, 길선주 목사, 그레이엄 리 선교사(왼쪽 세 번째부터)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이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관직도 얻었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혈기가 대단하였다. 평양 성내에 코가 큰 서양인이 나타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기풍은 마펏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그의 집에 돌팔매질을 하였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건축 중이었던 때에는 그 현장에 가서 교회 건물과 시설물을 때려 부수며 파괴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꿈에 마펏 선교사가 자신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주님의 음성이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 이야기는 그의 딸 이사래 권사가 간증한 것이다.

그는 괴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식욕도 잃게 되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마펏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받았다.

그 후 마펏 선교사는 이기풍이 병상에 눕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와 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마펏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그를 미워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용서하며 사랑하였다. 이기풍은 원산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스왈론(Swallen)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1896년에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전적으로 그 선교사를 섬기며 밥을 해 주며 선교사의 조수가 되어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는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함경도 지역까지 원정 전도를 하기도 하였다.

1899년에 평양으로 돌아온 그는 해가 뜨기만 하면 평양 성내를 다니며 전도하려 다니는 일이 그의 일과가 되었고 평양 장대현교회를 열심히 섬기자, 마펏 선교사는 그를 장로로 임직을 주어 그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였다. 1903년에는 마펏

선교사의 권면을 받아 25살이라는 최연소 나이로 평양 신학교에도 입학하였다. 그 당시에 같은 신학을 공부한 길선주를 비롯한 한석진 등은 나이가 40대에서 50대였다. 그는 1907년 6월 10일 장대현 교회의 뜰에서 역사적인 제 1회 평양신학교 졸업생으로 한석진과 길선주와 서경조 등과 같이 졸업을 하고, 그해 9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어서 그는 1908년 2월 평양 독노회로부터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 당시 제주도는 유배지나 다름없었고 우상과 미신이 가장 극심한 섬이었는데,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이며 험지인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 그곳에서 지난날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그가 13년 동안 제주도에 주민들에게 모진 핍박과 배척을 받아가며 제주도에 ‘성내교회’를 비롯해 8개 교회를 개척하여 그곳에 십자가를 세

웠다. 그로 인해 제주도 주민들은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기풍 목사는 후에 전라도 광주 제일교회와 순천 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교회를 섬겼다.

이기풍 목사는 그 당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에 굴하지 않고 거부하다 감옥에 갇혀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1942년에 순교를 당하였다. 그는 한국 초대교회의 최초의 목사였고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으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였다. 이기풍은 최초 7인 목사로서 평양 출신이었지만, 그의 사역지를 평양이 아닌 가장 험지인 제주도를 자신의 사역지로 삼으므로 최초의 이남 지역의 목회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택하고 양육한 사람은 바로 마펏 선교사였다. 마펏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였던 사울을 택하여 그를 위대한 사도로 택하시고 초대교회의 최초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 같이, 마펏도 자신을 핍박했던 그를 평양 신학교로 보내고 목사로 양육한 다음 해외 선교사로 세웠다. 마펏은 초대교회의 교부 같은 위대한 한국교회의 초대 파운더(Founder)였다.(계속)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4년간 사고방정시 현역주식만 현재까지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 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다시 2021년 대는 뉴스타  
캐슬리  
Cell 714.345.4989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전광훈 목사, 대선 앞두고 광화문서 '10만 목회자 대회' 연다

전광훈 목사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 사명 다해야"  
김진홍 목사 "친중·친북, 교회가 직무유기했던 결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2월 19일 광화문에서 10만 목회자 대회(대회장 전광훈 목사)를 개최한다. 이 대회 주최 측은 1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이를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고, 정권교체와 복음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회장인 전광훈 목사(국민혁명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를 역사를 통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조선은 고종 한 사람 때문에 망했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승만·박정희를 잇는 세 번째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끝날 위기"라며 "오늘 발기인대회에 오신 1천 명의 지도자들이 100명씩을 동원해, 이번 10만 목회자 대회가 대한민국 역사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되게 하자"고 했다.

그는 "이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들을 보내 주셔서, 그들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지었고 건국대통

령 이승만을 길러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한미동맹·기독교입국론의 4대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바치려 하니,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목숨 걸고 시국선언을 하고 두 번이나 감옥에 가면서까지 싸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인재개발연구소를 만들어 인재들을 양성하고, 교민청을 만들어 교민들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많은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로 남북한이 통일되면 G2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2월 19일 광화문에서 10만 목회자 대회(대회장 전광훈 목사)를 개최한다. 이 대회 주최 측은 1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



전광훈 목사. ©너알아TV 캡처

서 이를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고, 정권교체와 복음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는 "북한의 '남조선 해방 10대 강령' 중에서도 네 번째가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교회 안에도 친북 주사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목사는 "대한민국이 아시

아 복음화와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하려면 먼저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친중·친북으로 가는 분위기를 바꾸고, 예수 잘 믿는 통일한국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이 정권 중심부에 들어와 우리나라를 그쪽으로 몰고 간다"며 "그동안 교인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애국자요, 나라 사랑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광화문 광장에서 밤새워 기도했던 기독교인들도 높이 평가한다.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들이다. 그런 분들의 기도의 공로로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것"이라고 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안하면 역적이다. 그들이 이런저런 욕심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2월 19일 광화문에서 10만 목회자 대회(대회장 전광훈 목사)를 개최한다. 이 대회 주최 측은 1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이를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고, 정권교체와 복음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도 이 행사에서는 감리교의 장학일 목사, 침례교의 지덕 목사, 성결교의 이용규 목사, 예장 고신의 이성구 목사,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 등이 지지 발언에 나섰다. 이대웅 기자

## “교회 내 성범죄 가해자, 일반교인이 목회자보다 많아”

목회데이터연구소, 8일 주간리포트서 밝혀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목회자보다는 일반교인에게서 훨씬 많다.”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8일 발표한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130호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면서다.

지연컴리서치가 실시한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에서 65세 사이의 교회 출석 개신교인 800명과, 전국 목회자(담임 목사, 부목사, 설교·협력 목사) 212명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

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됐다.

조사 결과 개신교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가벼운 신체 접촉’(N=180)의 경우 일반교인 61%, 목사·교역자 12%였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품평·별명 사용’(N=88)은 일반교인 70%, 목사·교역자 7% ▲‘가벼운 성적 농담’(N=76)은 일반교인 71%, 목사·교역자 2%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N=44)은 일반교인 66%, 목사·교역자 5% ▲‘질은 성적 농담’(N=27)은 일반교인 79%, 목사·교역자 4%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N=26)은 일반교인 74%, 목사·교역자 4% ▲‘심한 신체 접촉’(N=17)은 일반교인 60%, 목사·교역자 11%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N=16)는 일반교인 91%, 목사·교역

자 2%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빅데이터로 본 한국교회 4대 이슈”는 2019년부터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연례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빠지지 않는 고정 이슈가 목회자 성범죄 문제”라며 “그러나 실제 조사 데이터는 목회자보다는 일반성도에게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회 내 성 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언론에 목회자 성폭력만 보도되어서 우리 인식 속에는 목회자 성범죄만 각인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교인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일부만 비난을 할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한동대, 최도성 신임 총장 취임



최도성 신임 총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한동대

한동대학교 최도성 신임 총장 취임식이 8일 오후 2시 포항 한동대 효암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취임식에는 이재훈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이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국내외 학계 정관계 인사들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최도성 신임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동대는 도전이라는 바람을 타고 솟구쳐 올라야 한다”며 “영성에서의 리바이벌, 교육

에서의 리바이벌 등 과감한 리바이벌, 즉 부흥을 통해 한동대학교를 리셋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크리스천 대학,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섬길 학생들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으로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세상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성 총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동대 국제화 부총장, 가천대 국제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최도성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4년이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일보 제공

#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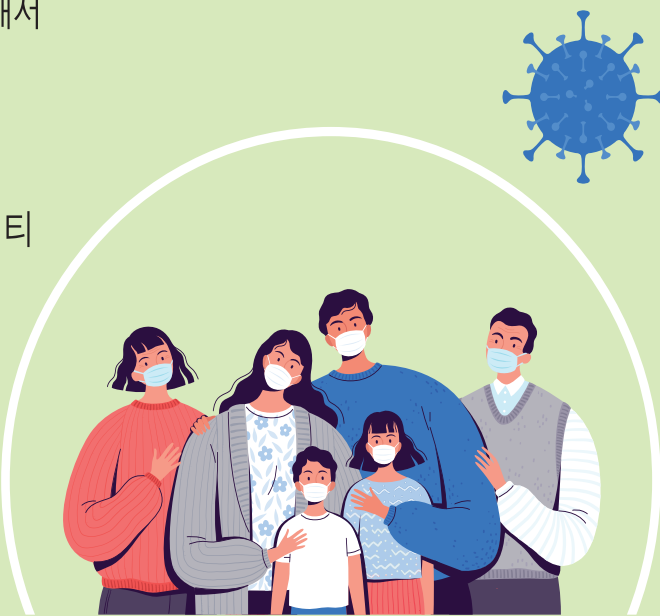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NOW OFFER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DP(11<sup>TH</sup>~12<sup>TH</sup>)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  
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 이란서 기독교 개종자 10명에 이슬람 재교육 '강제'

이란 후제스탄 주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최근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끄는 '재교육' 수업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요원들은 작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8명을 포함한 10명의 기독교인에게 이슬람 성직자들과 총 10번의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란의 비영리 감시단체 '아티클18'은 이 수업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더 많은 개종자들을 수업에 소환했고, 다수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참 이유를 추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티클 18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4월 남서부 테즈플 시에서 기독교인 개종자 4명을 체포했다. 또 가정교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반체제 선전' 혐의로 이들을 체포했고, 추

가 심문을 위해 다른 기독교 개종자들도 소환했다.

당시 구속된 4명은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개인 재산을 6개월 동안 압수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은 "강제 이슬람 재교육 의무화 수업은 4명의 기독교인이 '단지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것에 불과하다'는 데즈플 민사 혁명 재판소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법원은 이 배교 행위가 이슬람 샤리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란 법에서는 범죄화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그들이 "다른 단체에 어떠한 선전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2021년에 발생한 38건의 기독교인 체포 사건 중 12건에 책임이 있다고 아티클 18은 보도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이란에서 재교육은 훨씬 보편화돼, 법원 공문에 '교정 처벌'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



이란의 무슬림 여성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작했다. 오픈도어스 USA가 발표한 이란 팩트 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기독교 개종자들은 정부로부터 박해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회나 가족에 의한 박해는 덜하다.

팩트 시트는 이를 "정부가 이란 교회의 성장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

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본다"라며 "무슬림 출신 개종자로 구성된 가정 예배 모임은 종종 급습을 당하고, 그들의 지도자와 구성원들 모두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로 체포, 기소되어 징역 장기를 선고받는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며, 시아파 이슬람이 공식 국교이다.

이로 인해 무슬림 시민이 개종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또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도에게 복음을 공유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처벌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비밀리에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 2020년 20세 이상 이란인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반면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세속 연구 단체 '가마안(GAMAAN)'은 8천만 명이 넘는 이란 인구 중 기독교인 수는 "의심할 여지없이 수십만 명 규모이며, 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2022년 오픈도어스가 선정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9위이며, 미 국무부가 꼽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돼 있다.

김유진 기자

# 중 관영신문, 기독교계에 홍콩 민주화 시위 선동 혐의 제기



거리에서 나온 홍콩 시위대의 모습. ©Vox 보도화면 캡처

중국 관영신문이 기독교계에 대해 홍콩 민주화 학생 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제기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중국연락사무소가 소유한 홍콩 언론 타 쿵 파오(Ta Kung Pao)는 일련의 기사를 게재해 "조셉 쟈 추기경과 교회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부

추기고 시위대를 변호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쟈 추기경이 성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홍콩을 어지럽힌다"는 제목의 첫 기사는 홍콩 민주 언론인 애플데일리 창립자 지미 라이(Jimmy Lai)와 전 홍콩 국회의원 마틴 리(Martin Lee)를 비판했다. 라이와 리는 작년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 개의 후속 기사는 교회가

홍콩 학생들 사이에서 폭동을 선동하고 민주화 시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단체나 개인들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부가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며 "민주화 운동에서 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사는 홍콩의 친중파 입법부를 지지하는 성공회 신부인 피터 쿤의 "교회에 대한

정부의 더 큰 감독을 지지한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쿤 신부는 정부에게 종교사무국을 만들거나 중국 사원 조례를 교회까지 확대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허드슨연구소의 종교자유센터 소장이자 저명한 종교 자유 수호자인 니나 시어 박사는 에포크타임스 기고에서 "(해당 매체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더욱 강력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 4건이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탄압을 예고하는 종류의 맹렬한 비난 캠페인과 비슷하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한때 홍콩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자유를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시어 변호사는 익명의 홍콩 기독교 성직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교회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부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독교 학교를 통제할 의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CP는 "쟈 추기경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중국 본토 교회에 대한 억압적인 중국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몇 안 되는 중국의 저명한 성직자 중 한 명"에 공산당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국 당국이 주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2018년 바티칸 협정에 비판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오픈도어가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중국은 17위를 기록했다. 오픈도어는 "중국에서 교회 출석은 엄격히 감시되며, 독립교회든 삼자교회든 관계없이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8세 미만의 교회 출석은 여전히 불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집회 장소가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일부 교회는 제한이 풀리며 강제 폐쇄됐다가 조용히 단계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 LA office/Showroom

# 리모|델|링

전문

## 오|픈|기|념|세|일

단독주택에 **ADU**  
**Second Unit** 건축  
**Water Damage**  
보수공사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2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전적상담

**LA**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OC**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 강준민 칼럼

# 겸손은 지혜를 낳습니다!

구약의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잠언에서 가르쳐 주는 지혜 중의 하나는 겸손입니다. 잠언은 거듭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 18:12).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잠 16:5).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벧전 5:5).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약 4:6).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 22:4). 아담의 원죄는 교만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구속의 비밀은 겸손과 순종에 있습니다(빌 2:8). 교만은 아담의 본성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예수님의 본성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야말로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저주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아담의 본성, 즉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에 교만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위해 따로 세미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예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겸손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야 할 덕이 겸손의 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는 까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족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불만과 원망의 뿌리에 교만이 있습니다. 겸손한 가정은 행복합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가정은 불행합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가정은 천국을 맞보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교만한 가정은 지옥을 맞보며 살아갑니다. 겸손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의 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쌓아야 할 덕입니다. 제게 가장 부족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의 덕을 쌓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겸손의 덕을 쌓는 중에 겸손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습니다(단 6:16, 20). 그런 까닭에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단 6:10). 겸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겸손은 경외를 낳습니다. 잠언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함께 언급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 15:33, 22:4 참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은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시 46:5, 히 4:16).

둘째, 겸손한 사람은 잘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잘 배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배웁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좋은 책을 통해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승에게서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승의 중요성을 알고, 스승을 존중합니다. 스승의 가르침

아래 머물기를 즐겨합니다. 바울은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딤후 6:4). 그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과거 속에 살게 됩니다. 과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배우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잘 배우는 사람은 생각이 유연합니다. 잘 배우는 사람은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잘 배우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줄 압니다.

셋째, 겸손한 사람은 경청할 줄 압니다. 경청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경청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 존중, 그리고 집중은 경청의 열매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압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한 말, 적합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평생 동안 겸손의 덕을 쌓음으로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합시다

##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성원 목사

비록 반동 새끼에 불과한 영예지만 그런들 어쩐가. 사람들이 무의식중이라도 하나님의 역사

를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또한 그 해 대풍년이 들어 이삭이 받은 백 년의 결실을 거두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담보로 성경책을 구하게 하시더니 레위기를 읽게 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황소를 잡게 하신 뒤 나쁜 아니라 우리 작업반 모두를 살려 주셨다. 그것만도 너무 황송하고 감사한데, 이후 복에 복을 더해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주셨다. 그렇기에 내게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이 곧

나의 사명이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황소를 잡은 일을 반동으로 여기는 북한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이 길이고 생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내 동포들을 생명의 땅으로 옮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3장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축복

이다  
결사 전도, 결사 복음 통일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제아무리 양갈이 온순한 사람이라도 동료의 비참한 주검을 목도하면 불사신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전쟁에 참전해 본 사람이라면 백분 공감하는 얘기다. 나 역시 74명의 작업반원 중 42명을 잃었다. 그들의 자녀들까지 합하면 111명을 어깨에 메고 땅에 묻은 셈이다. 작업반

원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주검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핏덩이들을 땅에 묻자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에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응징해 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 놓고 기도를 조직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들의 의견을 묻고 방향을 결정할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었다. 13명의 아이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다양한 기독교정보

#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성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죽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욕심에서 자유 해야 합니다.

최고의 풍요와 기쁨의 동산 에덴동산을 망친 것은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하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선택하므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사망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간의 실패와 공동체 분쟁의 뿌리에는 언제나 욕심과 탐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4-15), 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3:5)라고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점에 있는 것이 욕심과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욕심과 탐심

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죄의 원인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자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난주일 있었던 슈퍼볼 경기에서 시즌 MVP와 NFL 올해 최고의 공격수로 선정된 LA 랩스의 와이드 리시버 쿠퍼 쿵(Cooper Kupp)은 3대째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이날 짧은 경기 종료 1분 29초를 남기고 역전 터치다운을 찍는 등 터치다운 2개를 기록했고, 총 8개의 패스를 받아내고 92야드를 전진해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겸손하게 모든 공로를 코치,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동료, 가족들에게 돌리며 두 번씩이나 “God is good, God is good” 외쳤습니다. 그의 부인 또한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이 순간. 이 순간들! 하나님

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명자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속삭임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성공의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시장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이루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돈만 많이 벌려는 성공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 공산주의가 일어나 온 세상을 어둠과 저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상 성공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가로막음을 알아야 합니다. 돈 만 불을 움켜잡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백만 불을 놓칠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더 큰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차원은 내가 다 상상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결말은 확실합니다.

욕심에서 자유하려면, 내가 욕심과 싸우지 않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선순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애지중지 하던 장난감들도 커서 더 좋고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미련도 없이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떤 고행과 훈련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욕심일지라도, 발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님 생명으로 충만하면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그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충만입니다.

# 친구 목사

요즘 자주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앉아서 옛날 얘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계획 있는 만남도 아니고, 뭔가를 얻어내려는 이해관계도 아닌, 그냥 보기만 하면 좋고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여과 없이 내놓아도 아무 걱정 없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제법 이른 나이에 한인이 별로 없는 한적한 뉴잉글랜드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Give me Scotland, or I die”를 좌우명 삼아 겁도 없이 뛰어든 목회의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

람 사람 사람들...이민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스스로 믿고 달리면서 만난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목회 철학이 같아서 일년에 한 번은 만나자고 손가락 걸고, 열 명의 친구들이 대동단결하여 늘 만나왔는데, 지난 10년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얼굴 서로 보자고 비행기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것이 솔직히 사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도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 일부러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호텔 방에 모여 앉아 밤을 새우다시피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며 깔깔대다가 때로는 교회의 아픔을 겪는 동료들의 안타까

움에 같이 울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느새 우리의 아픔은 치유되고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날 것 서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계속 바빴던 스케줄을 소화하고 갑자기 찾아온 조용한 시간. 사무실에서 창 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친구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이른 오후이지만, 실내 공기는 살짝 오싹할 정도로 싸늘해서 그런지, 두 손을 자주 비비게 됩니다. 비록 같은 교회를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30년 넘게 옆에서 함께 달려왔던 친구들을 생각하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들의 격려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코끝이 찡하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미국 대각성 부흥(The Great Awakening)의 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책을 읽으며, “하나님, 저의 목회에도 이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지난 30년간 밤하늘에 폭죽 터뜨리듯 수 놓인 이 부흥을 밤새워 함께 이야기할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아마, 지금은 부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더 깊이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인가 봅니다.

오늘은 퇴근하는 길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야겠습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ge	\$300,000		\$500,000		\$1,000,000		Age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액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월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제47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이임회장 : 정도영 장로  
취임회장 : 이영수 장로

- 일시 : 2022년 2월 27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박일영 목사)  
1374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323) 733-2922
- 문의 : (714)887-4454, (213)321-2329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담임목사 청빙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 담임목사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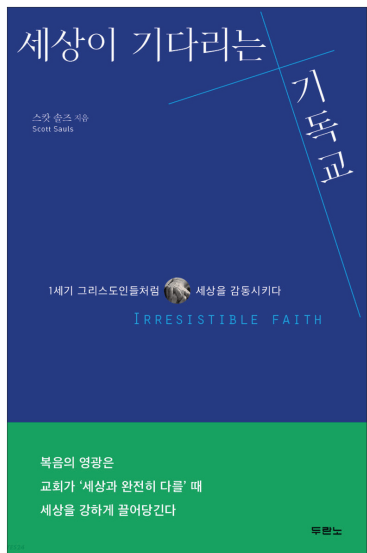
- 교회(소개)
  - 1) 이름: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Antioch Church of Las Vegas)
  - 2) 주소: 7635 Dean Martin Dr, Las Vegas, NV 89139 (702-749-9929)
  - 3) 현 소속교단: 해외 한인장로회 (KPCA)
  - 4) 교회 홈페이지: www.omychurch.org
- 지원자격
  - 1) 미국 KPCA(해외한인장로교회)교단에 가입된 분이거나 가입할 수 있는 분으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 2)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부목사 포함)
  - 3) 미국내 목회활동에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
  -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가족소개 포함, 최근본인 사진과 가족사진 첨부)
  - 2)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3)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 (동영상 또는 YouTube 링크)
  - 4) 최종 사역교회 후보 또는 홈페이지 주소
  - 5) 목사 2인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요망 또는 추천인이 이메일로 직접제출)
  - 6) 목회 비전과 계획
- 제출방법
  - 1) 이메일: myungcho09@gmail.com
  - 2) 제출기한: 2022년 2월 15일
  - 3) 설교를 제외한 모든파일은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서류 심사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6)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경우, 청빙 결정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7) 최종 후보자는 원본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위에있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스콧 솔즈 목사 저서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세상이 기대하는 믿음,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이재훈  
두란노 | 188쪽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을 감동시키다

예수님은 좋지만, 크리스천은 피하고 싶은 당신에게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기대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는 기독교에 대한 시선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다’라는 것이다. 저자 스콧 솔즈 목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의 정신을 오롯이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다 △세상을 바꿀 힘은 성경에서 나온다 △인생의 진짜 보물인 예수를 붙들라 △내면의 카멜레온을 죽이고, 진짜 나를 보이라 △우리는 모두 영적 돌봄이 필요하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 공동체를 세우고, 소망을 더한다 △가난한 이웃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꾼다는 총 9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꾼다’가 눈길을 이끈다.

저자는 “거부할 수 없는 믿음

은 삶 속의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단 위에서 나타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운동,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는 운동은 무엇보다 마음과 삶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며 “이 운동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나게 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형성해 나가실 때 이루어진다. 이런 개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비전을 공유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공동체에 끌리게 된다. 그렇게 모인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눈을 돌려, 그분의 선한 일에 참여하라는 그분의 은혜로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지능과 기술, 천재성, 솜씨를 너무 자신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 자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은 폭력, 빈곤, 인종 차별, 경제적 불평등, 탐욕, 아동 방임, 사랑 없

는 부부, 섹스 중독, 인신매매, 세계 기아, 정치적 분열, 이념적 대립과 분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격이 급한 영혼들은 이 난장판을 정리할 해법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술적 발전에도 활력이 넘치기는커녕 더 피곤해지고, 진보는커녕 오히려 쇠퇴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예수님에 따르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평화, 치유, 온전함, 번영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를 받은 제자들이 있다. 이들은 남다르며 인간의 정신, 지능, 용기를 의지하지 않고, 평화, 치유, 온전함, 번영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비전에서 오는 결단력을 의지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에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소금, 빛, 동네, 이 세가지의 비유는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저자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산 위의 동네이며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분의’ 빛이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밤의 어둠을 밝혀 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의 빛은 하루도 빠짐 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밖으로 나가 그 빛을 쬐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온 세상의 지역과 도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길로 나와야 한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당신이 뜻하신 것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족,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 권력과 영향력, 명성을 지닌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되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에서는 특별한 부류도 ‘엘리트’계층도 없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

생명의말씀사가 리코 타이 스 목사(런던 올솔스 교회)의 신간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30년간 사역을 하면서 교회 리더십이 다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저자 타이 스 목사가 강조하는 교회 리더십은 ‘신실함’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성경과 자신의 사역 경험을 통해 신실하지 못해 파멸에 이른 사례들을 소개하며 신실함의 중요성을 세게 한다.

저자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유례 없는 팬데믹에 전 세계가 요동

쳤다. 교회 안팎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던 데다, 요 몇 년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목회 현장이 급변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여러 리더십이 사역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리더십은 ‘신실함’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신실함”이라면 정말 중요하고 기본이 되지만, 좀 추상적이고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세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그에 맞춰 사역의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각종 방법론이 부족한 것보다 리더 자신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교회에 결정적으로 치명적이

라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신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혼과 열심을 쏟아 섬기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족으로 뒤바뀌어 버린다.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성공을 정의하고, 자기 죄와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이끌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전투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기꺼이 섬기겠다는 열망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어려운 현실과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은 또 얼마나 실망스러울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지만, 열망과 실망스러움 사이에서 느끼는 이 긴장감이 오히려 신실한 리더로 서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책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 장로든 성도들에게 힘과 도전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한편, 리코 타이 스 목사는 1966년 칠레에서 사업가와 간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우간다와 자이르에서 자랐고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리버풀 도심에서 청년 노동자로 일하면서 갭 이어(Gap year)를 보냈고 브리스톨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이후 옥스퍼드의 위클리프 홀에서 목사 안수를 위해 훈련받았다.

영국 CEM(Christianity Explored Ministries)의 전체 디렉터를 맡았으며 세계 각지의 선교 대회나 전도 집회에서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런던 랭햄 플레이스의 올솔스 교회(All Souls Church)에서



설교와 복음 전도를 담당하는 수석 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 <기독교 탐사 핸드북>, ‘Capturing God’, ‘Honest Evangelism’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언약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내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필요시 종교비자 지원 가능)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예: 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2편) :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추천인 1명은 현(최근) 사역교회 담임목사, 다른 추천인 1명은 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함)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추천인에게 교회에서 직접 연락함.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 2022년 3월 27일까지(청빙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www.sunhanchurch.com

선한목자교회

유치부 사역자 청빙

Kindergarten Pastor, Part-Time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Chino Hills. GSPC is a member of the ECO denomination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e are in the process of hiring a part-time pastor to lead our Kindergarten department. We are look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teach, and guide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a part-time position for Friday evenings and Sunday Worship and Bible Study. There are currently 8 staff members serving in the ministry. Homepage: www.sunhanchurch.com

Qualification:

- 1. Currently enrolled in or graduated from a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 2.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in Korean with the parents.
- 3.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 4.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Application:

- \* If you feel GSPC would be a good fit for you, please email your resume with a picture (with your family if applicable), and a letter of introduction and spiritual journey.
- \*Please include 2 letters of recommendation. (Preferably from direct supervising pastors and/or church leaders who have known you well in the ministry context). The format should be a simple letter that describes your ministry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people.

\*Please email your documents to resume@sunhanchurch.co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킹메이커> (1)

# 자유민주주의와 직접 선거 제도, 절대 선(善)인가?

유능한 정치인 어필 위해 편법·기만책 동원 옳은가 민주주의 절차적 근간 '선거', 허실과 한계 보여줘 민중의 욕망과 편견, 선거 통해 독일 히틀러 집권 민주적 절차라는 대의명분 이상화 이면, 이익 추구

### ◆선거의 허실: 선거를 둘러싼 책략의 문제점

최근 개봉된 <킹메이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직 젊었던 시절, 그의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1988)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이다.

최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총선이나 대선과 관련된 영화가 자주 개봉되는데, 이 영화도 비슷한 전략으로 흥행을 노리는 듯하다.

영화 속에서는 실존인물의 실명 대신 가명이 사용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윤범(설경구 분)으로, 엄창록은 서창대(이선균 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엄창록은 다양한 심리전 및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 선거 필승 전략을 내놓았던 유능한 정치 참모였다. 과거 신민당 출신 정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세 시 인물 사진을 붙인 피켓을 이용해 세를 과시하고 특정 후보자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전략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 이 엄창록이라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효과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창안하는 데도 대단한 수완을 발휘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러브콜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킹메이커>는 이 엄창록이라는 책사가 실제 기획했던 선거 전략을 영화적으로 각색하고 과장해서 묘사한다. 이는 금전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을 능수능란하게 상대한 엄창록의 기발함을 돋보이게 한다.

영화 속에서 엄창록은 휘하의 인원을 공화당원으로 위장시켜 공화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뿌린 금전과 선물을 수수하도록 해 민심을 악화시킨 뒤, 수거한 물품을 다시 신민당이 주는 선물

로 둔갑시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산다. 이 내용은 영화적으로 과장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엄청난이라는 인물이 민의를 조작하는데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킹메이커>는 1970년 '40대 기수론'이 대두된 신민당 경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당내 라이벌인 김영삼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듬해 김대중 후보가 3선에 도전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막상막하의 대선 선거전을 치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엄창록은 갖가지 효과적인 선거 전략을 동원하는데, 그 가운데는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기만책이 등장한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1971년 7대 대선 레이스 당시 김대중 대선 후보의 자택에서 일어난 폭발물 테러이다. 영화는 이 사건을 실제 역사대로 잘 표현하고 있다.

다만 실제 역사에서는 이 일을 기획한 인물이 누구인지 불명확한데, 영화 속에서는 마치 엄창록이 김대중 후보를 속이면서까지 꾸며낸 일인 것처럼 서사를 풀어내고 있다.

여기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연출을 맡은 변성현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영화 <킹메이커>는 유능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을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편법과 기만책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관객에게 질문하고 있다.

### ◆선거의 불완전성: 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위협하는 선거 절차의 한계

사실 이 질문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민주정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든 대의민주주의든 간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국민의 의향이고, 이 의향을 확인하는 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킹메이커>.

차가 선거이다.

그런데 선거는 결코 완벽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선거의 기본 원리와 이상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있지만, 현실에서의 선거는 여러 변수와 책략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선거가 절차적으로 온전하게 치러지더라도 그 선거를 치르는 국민들의 욕망, 편견, 그리고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적절치 않은 지도자들이 선출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193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선, 그리고 1934년 독일 국민투표이다. 1933년의 총선에서는 나치당이 독일 제1당이 되었고, 이듬해 국민투표에서는 히틀러가 대통령과 총리 직을 합친 총통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는 민중의 욕망과 편견이 선거를 통해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만큼 민주주의란 불완전하고 무너지기 쉬운 정치 체제이다. 이는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 각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거의 세뇌에 가까우리만치 철저하게 민주주의 이념과 그 절차에 대해 교육시킨다.

이런 교육은 국민의 정당한 권

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이 순기능도 엄창록 같은 유능한 정치참모들의 술수나 편견에 휩싸인 군중심리 앞에서는 쉽게 무력해진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오래 고수한 국가이다. 그만큼 대통령 및 의회 의원 선거를 수도 없이 치렀고, 그에 대한 노하우 또한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거 역사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선거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간접선거 선거인단을 우선 뽑는 특이한 선거 방식으로 인해, 국민들의 득표를 더 많이 한 이들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이는 각 주가 하나의 국가 자격을 갖는 미국의 연방국가 체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라는 것이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실험 중이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결코 절대적 가치, 절대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천부인권과 기회의 평등은 분명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이념의 하나이고, 성경적으로도 타당한 면이 많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 또한 중요하다. 때로는 이 방편이 어그러져 원래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들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2013-2018) 같은 작품이 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도, 미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큰 기대와 깊은 우려를 동시에 반영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킹메이커>처럼 민주주의의 허실을 보여주는 영화는 여러 모로 의미미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감독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킹메이커>는 민주주의가 모든 사상, 신념, 그리고 종교적 믿음을 뛰어넘어 거의 지고선처럼 추앙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태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목표와 기본이념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유익한 면이 많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절차는 여러 모로 불안정하고 때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많다.

<킹메이커>는 이 절차 안에 배태된 문제들을 끄집어낸다. 이런 비판의식은 민주적 절차라는 대의명분을 이상화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 여념이 없는 여러 영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난립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실태를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samsungmoving@gmail.com



#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